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풍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번 2길 6번지

## 민선8기 3년, 전북 미래 비전 공유

김관영 도지사, 전주MBC 공개홀서 '도민과의 대화' 청년·소상공인·사회단체 관계자 등 200여명 참여 민생·올림픽·지역소멸 등 현안 질의·응답 이어져

전북특별자치도가 민선 8기 출범 3년을 맞아 도민과 직접 마주 앉아 그간의 도정 성과를 돌아보고, 전북의 미래 비전을 함께 고민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자치도는 24일 전주 MBC 공개홀에서 민선8기 3주년을 기념한 '도민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이날 김관영 도지사와 청년, 소상공인, 농업인, 기업인, 사회단체 관계자 등 도민 200여명이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자치도와 KBS, MBC, JTV 등 지역 3개 방송사가 공동 주최했으며, 전주 MBC에서 녹화 형식으로 진행했다.

행사에서 도민들은 도정 전반에 걸친 주요 이슈에 대해 현장감 있는 질문을 던졌고, 김 지사는 이에 진지하게 답하며 전북의 현재와 미래를 공유했다.

김 지사는 특히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전북도정의 대응 전략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 경과와 비전 △고물가·고금리 상황 속 민생경제 회복 방안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 전략 △지방소멸 위기 대응책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설명을 내놓았다.

행사는 전주 MBC에서 녹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새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민생

경제', '첨단산업', '지역소멸 대응' 등 주요 도정 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다. 김 지사는 도민 질문 하나하나에 진지하게 답하며 도정 방향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



24일 전주 MBC 공개홀에서 열린 민선8기 3주년 기념 '도민과의 대화'에 김관영 도지사가 도민 200여 명과 함께 현안에 대해 소통하고 있다.

견을 적극 경청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자치도는 출범 이후 큰 전환점에 서 있으며, 이제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할 시기"라며 "앞으로도 도민 중심, 현장 중심의 행정을 통해 전북의 도약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여당 소속 도지사로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전북경제 회복, 신산업 생태계 조성,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전주올림픽 유치, 기업 유치, 민생경제 회복 등

핵심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임현주 MBC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도민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풍부한 제안이 이어지면서 무기침보다는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한편, 이날 녹화된 '도민과의 대화'는 오는 7월 3일 MBC(오후 5시 45분), JTV(오후 6시 40분), 7월 4일 KBS(오후 7시 20분)에서 각각 1시간 분량으로 방영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전북 3선' 유성엽 전 의원 별세

6·3 대선 전국 유세 지원 중 뇌졸중... 끝내 영면

지난 대통령 선거 유세 중에 쓰러졌던 유성엽 전 국회의원(사진)이 소생치 못하고 영면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인위원장을 맡아 지난 대선에서 전국 지원유세에 나섰던 유성엽 전 의원은 지난달 30일 집안에서 선거운동 중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곧바로 전주 대자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아 왔으나 중환자실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24일 향년 66세의 나이로 숨을 거뒀다.

정읍 용동 출신인 유 전 의원은 전주교과대학교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고 이후 경제통상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후 정치를 하기로 맘먹은 그는 2002년 짧은 준비기간에도 정읍시장에 도전해 성공했다.

단 임기를 6개월 남겨둔 상태에서

스스로 시장직에 물러나 전북도지사에 출마해 쓴잔을 마셨다.

하지만 이후에는 제18대, 제19대, 제20대 국회의원에 내리 당선됐다.

특히 그가 이룬 호남권 최초 무소속 2회 연속 당선은 정치권에 큰 파란을 일으켰다.

민주당과의 인연을 골똘이 맺었다. 최초 새천년민주당 공천을 받아 정읍 시장이 된 후 탈당했고 이후 복당이 쉽지 않았다.

제20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 후보로 당선됐고 이후 민주당을 거쳐 민주당에 복당한 뒤 22대 총선에 나섰지만 당내 경선에서 윤준병 의원에 패배 뜻을 이루지 못했다.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활동했고 특히 제20대 정반기에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활동하기도 했다.

빈소는 정읍장례문화원 VIP 301호, 발인은 26일이다. /뉴시스

## 도, 농촌유학 제도 내실화 나섰다

총 44억7600만원 투입 유학경비 지원 등 추진

전북자치도가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와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정책으로 '농촌유학' 제도 내실화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24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2025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유학협의회'를 열고, 위촉 위원 13명을 포함한 총 15명의 위원을 공식 위촉했다.

협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산어촌 유학 지원 조례'에 따라 구성된 공식 자문기구로, 김종훈 경제부지사가 의장을 맡고 있다. 위원들은 도의원, 도교육청, 학계, 활동가,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전북 농촌유학은 2022년 전북자치도, 전북도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재경전북도민회 간 협약을 계기로 본격 추진됐으며, 민선 8기 대표 교육협치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초기 27명으로 시작된 농촌유학생은 2025년 1학기 기준 204명으로 늘었고, 도내 10개 시군 28개 학교에서 교육과 농촌 생활을 함께 체험하고 있다.

농촌유학은 도심 학생들에게 생태환경과 공동체 문화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농촌 소규모 학교의 존립을 지원하고, 유학생 가족의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추며 확장 가능성 또한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농촌유학 내실화를 위해 총 44억7,600만원을 투입해 유학경비 지원, 특화프로그램 운영, 가족 체험형 거주시설 조성, 센터형 유학 지원 등 4대 핵심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 추진현황 보고와 함께 유학생 가족 만족도 제고, 지역정착 유도 방안 등에 대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협의회를 중심으로 농촌유학의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이만호 기자

## '세계호남인의 날' 전북 유치 확정

10월 3일 전북에서 공식 기념식 진행 | 도, 세계호남향우회총연합회와 간담회

전 세계 호남인이 고향 전북에서 다시 하나 되는 뜻깊은 행사가 열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10월 '2025 세계호남인의 날' 기념행사를 전북에서 개최하며, 세계 곳곳에서 활동 중인 재의 호남인들을 따뜻하게 맞이할 준비에 나섰다.

'세계호남인의 날'은 2013년 창립된 세계호남향우회총연합회가 주관하는 대표적인 민간 교류 행사다. 올해 행

사는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전남, 전북, 광주에서 열리며, 10월 3일 공식 기념식은 전북에서 진행된다. 기념식에서는 축사, 공로패 수여, 장학금 전달 등 공식 행사와 함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된다.

전북에서는 임실, 남원, 순창, 정읍 등에서 고향 시찰이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지역의 역사와 현재를 함께 체험

할 수 있다. 주요일정은 10월 2일 전남 목포·영암 방문을 시작으로, 10월 3일 전북 숙박과 기념식, 10월 4일 정읍과 광주 방문으로 이어진다.

전북자치도는 이날 서울 전북중앙협력본부에서 세계호남향우회총연합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이번 행사 운영계획을 공유했다. <관련사진 3면> 간담회에는 이기자 회장(목일), 김요준 브라질 호남향우회장, 정광일 사무

총장(미국), 김성수 전사무총장 등 4명의 주요 인사가 참석해 기념식 구성, 환영 행사, 시할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하며 행사 준비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도는 해외 향우 초청, 숙박 및 교통 지원, 안전관리 등 행사 전반에 걸쳐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 군산 시 의회

# 내 지역, 내 경제!

## 지역 상점에서 구매하고 지역 경제를 응원하세요!

함께해요!

든든한 군산시